



방정수 대원 주무석 과장

‘대한민국 넘버 원’ 공무원

광주 동부소방서 방정수씨 심폐소생으로 6명 구해

완도해경 주무석씨 ‘중 어선 잡는 귀신’ 278척 나포

광주 고실초 박병하씨 34년간 78회 교원 최다 표창

도농기원 기광연씨 장미 신품종 개발 농가소득 기여

광주 동부소방서 방정수 구급대원이 대한민국의 생명 지킴이 소방대원으로 선정됐다.

또 ‘중국어선 잡는 귀신’이라 불리는 완도해안경찰서 주무석 경무기과장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전국 1위, 광주 고실초교 박병하 교사는 전국 최다 표창 수상자, 전남도농업기술원 기광연 농업연구사는 농가 소득증대 최대 기여 공무원으로 뽑혔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들 4명 등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최고 기록을 가진 공무원 94명의 사연을 담은 ‘아름다운 프로, 대한민국 공무원 NO.1’이라는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행안부는 이 책자를 각급 행정기관에 배포해 공직자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책자에 최고 기록 공무원으로 소개된 광주 동부소방서 방정수 대원은 급성 심정지 환자 여섯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킨 심폐소생 최

대원.

방 대원은 지난 2007년 1월 식사 중 갑작스런 기도폐쇄로 호흡이 멈춘 김모(여·69) 씨를 시작으로 지난해 4회, 올해 1회 등 모두 6명의 심정지 환자에게 제2의 삶을 선사했다.

완도해경 주무석 과장은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실적 전국 1위를 차지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1년동안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78척 2천823명을 나포했다.

이로 인해 중국어선민들에게는 ‘중국어선 잡

는 귀신’으로 통하고 있다. 주 과장은 “철저한 탐위크라는 합정 운영 원칙이 있었기에 최고 성적이 가능했다”며 전국 1위의 공을 탐원들에게 돌렸다.

고실초교 박병하 교사는 교원 최다 표창 공무원의 영예를 안았다.

박 교사는 1975년 6월19일 첫 발령 후 지금까지 장관 표창 18회, 국무총리 표창 2회, 교육감 표창 37회 등 교육장 표창 이상으로 총 78회 표창을 수상했다. 교직생활 34년간 연평균 2.29회 수상한 셈이다. 특히 1987년에는



박병하 교사 기광연 연구사

교육감 이상 표창을 6회 수상해 전국 최다 수상 공무원으로 기록됐다.

박 교사는 “최다 수상 영예는 교직생활 대부분을 학교 실험실과 학생 과학지도, 과학행사 참여에 보낸 결과”라며 “과학교사로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남도농기원 기광연 연구사는 WTO 가입에 따른 로열티 문제로 경영 압박을 받던 화훼농가에게 국산 장미 신품종을 개발·보급, 농가 소득증대 최대 기여 공무원이 됐다.

기 연구사는 ‘한마음’, ‘단미’ 등 12종의 신품종 국산 장미를 육성·보급했고 고품질 꽃 생산을 위한 장미 재배 적정 급액량, 전정방법 등 40여건의 기술을 개발했다.

또 장미 420종에 대한 품종 검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육종가와 재배농가의 품종 개발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이명자·이정남 시의원 감사패 받아



〈이명자 의원〉 〈이정남 의원〉

이호준씨 민주당 입당

○이호준 전 광주 남구 부구청장은 22일 “30여년의 행정 경험을 생활자치에 심기 위해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밝혔다.



양영애 서구의원도

○광주시의회 이명자 의원(민주·비례)과 서구의회 양영애 의원(민주·라 선거구)은 22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의 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장애인총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또 광주시의회 이정남 의원(민주·광산3)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명자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2급 장애인에 대한 광주시에 산 지원을 이끌어냈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관한 ‘광주시 인권 증진 및 민주 인권 평화도시 육성 조례’를 만들었다.

이정남 의원은 ‘광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조례’를 개정해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고 장애인체육 동호회 활성화와 장애인 직장 경기부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부구청장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민주당에 입당해 정치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민선자치 5기를 맞아 광주 남구를 보다 품격있고 시민 생활에 가까이 다가선 생활자치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고 매력있는 행복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힌다.

그는 “어렵고 약한 자의 편에서서 모심과 섬김의 자세로 정성을 다하겠다”며 “내년 설을 전후 해 앞으로 정치일정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장흥 출신인 이 전 부구청장은 송원고와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시 기획관·환경녹지국장·자치행정국장·의회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6자회담, 내년 2월 이전 재개 가능성”

북·미 후속대화 거쳐 재개 유력

북핵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북·미대화 이후 표면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한 형국이지만 물밑으로는 6자회담의 조기 재개동을 겨냥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 소식통들 사이에서 6자회담의 내년초 재개를 접치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런 흐름에서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22일 “내년 2월 이전에 6자회담이 개최돼야 흐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핵심 소식통은 “이른 시일 내에 6자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게 기본 입

장”이라고 말했다. 북·미대화 이전만 하더라도 6자회담 조기개최 가능성이 회의적이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이 같은 흐름은 일단 북·미대화 이후 6자회담 조기개최 쪽으로 ‘5자간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확답’을 주지 않았지만 이미 북·미 양국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공통 이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6자회담 조기 개최는 움직임 수 없는 흐름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는 얘기가.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은 크게 두갈

래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6자회담의 장국인 중국의 중재와 뉴욕채널을 활용한 북·미간 물밑 조율이다. 우선 미국은 북·미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바통’을 중국으로 넘겼다.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통해 일정한 양해를 끌어낸 만큼 북한을 최종적으로 6자 테이블로 끌어올 역할을 중국이 맡아달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의 지위로서 조만간 북한과 5자그룹간 조율에 착수, 6자회담 재개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6자회담의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장이 추이젠카이 주일 중국대사로 교체될 것이라는 설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



“수족관에 산타가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22일 필리핀 마닐라 오션 파크의 수조 안에서 산타를 로스 복장을 한 다이버들이 관객들을 바라보며 유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 ‘야생 호랑이 사냥’ 주민에 징역 12년

중국 최후의 야생 벵골 호랑이로 추정되는 호랑이를 잡아먹은 촌민들이 혹독한 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원난성 시샹반나 태족자치주 멤라현 인민법원은 21일 야생 호랑이를 잡아 주민들과 나눠 먹은 혐의로 기소된 이 마을 주민 칸렌센에게 징

역 12년에 벌금 10만 위안과 국가 보상금 48만 위안 등 모두 58만 위안(1억 원)을 몰도록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법원은 또 칸씨가 잡은 호랑이 고기를 함께 나눠 먹은 가오쭈차오씨 등이 마을 주민 4명에게도 징역 1~4

년에 1만~2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칸씨와 가오씨는 지난 2월 시샹반나의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인 난둔으로 조개를 잡으러 갔다 야밤에 수풀에서 움직이는 동물을 발견, 휴대탄 총을 쏘 사살했다. 뒤늦게 이 동물이 국가 1급 보호동물인 야생 호랑이인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겁을 먹고 현장을 떠났다. /*연합뉴스

시민과 함께하는 송·신년 축제

광주시 옛 전남도청 앞

인기가수 공연 등 다채

광주시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송·신년 축제를 개최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1일 밤 11시40분~2010년 1월1일 오전 1시40분까지 옛 전남도청 앞 특별무대와 금남로 일원에서 ‘희망 2010 빛고를 광주, 시민 송·신년 축제’를 개최한다.

시는 시민들과 함께 한해를 정리하고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시민 3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 행사에는 가수 한수영, 정경화, 박완규, 김수희, 노름마치,심

수봉,태군,넥스트 등이 무대에 오른다. 또 신년 송·신년 축하공연,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시는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도시철도를 1일 오전 2:40까지 연장운행할 방침이다. 광주시 도시철도 공사는 2010년 1월1일 첫 승객에게 꽃다발과 복주머니 등 행운의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제난으로 힘들게 한해를 보냈던 시민들을 위로하고 새해 새출발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송·신년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영기자penfoot@

2010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1. 모집학과

2. 모집인원

3. 모집방법

4. 지원자격

5. 지원서류

6. 지원기간

7. 지원처

8. 입학시험

9. 합격자 발표

10. 입학준비

11. 기타사항

55

광신대학교 !!!